

STUDIO
PHILIP AN

음악 장 필립 라모
극본 클레망 메르시에/장 라신
피아노.연출 안종도
모노드라마 라파엘 부샤르

한불 합작 음악극

PHÈDRE

연극이 있는 피아노 독주회 페드르

2022.03.25(Fri)

7:30 PM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주최
STUDIO
PHILIP AN

주관
epiphany moments

후원
bluebell
부루벨코리아(주)

AMBASSADE
DE FRANCE
EN COREE
대한민국
공화국

한국문화원
Centre Cultural Center

연세대학교



연극이 있는 피아노 리사이틀

PHÈDRE

아티스틱 컨셉 : 안중도

모노드라마 : 라파엘 부샤르

음악 : 장 필립 라모 (1683-1764)

극 작 : 클레망 카마르 메르시에 - 장 라신 (1639-1699) "페드르" (1677)에 의거하여

1막

나는 내 언니와 같은 옷을 입었어요 - J'ai la même robe que ma soeur

Prélude en la mineur, Premier Livre de Pièces de Clavecin (1706)
Allemande en la mineur, Premier Livre de Pièces de Clavecin (1706)

프렐류드, 가단조, 하프시코드를 위한 모음곡 제 1집 (1706)
알르망드, 가단조, 하프시코드를 위한 모음곡 제 1집 (1706)

2막

나는 노력해 - J'essaie

La Lardon en ré majeur, Pièces de Clavecin (1724)
La Boiteuse en ré majeur, Pièces de Clavecin (1724)

꼬마아이, 라장조, 하프시코드를 위한 모음곡집 (1724)
질름발이 여인, 라단조, 하프시코드를 위한 모음곡집 (1724)

3막

비너스 - Vénus

Les Soupirs en ré majeur, Pièces de Clavecin (1724)

사랑의 탄식, 라장조, 하프시코드를 위한 모음곡집 (1724)

4막

최상을 위하여 - Pour le meilleur

Le Rappel des Oiseaux en mi mineur, Pièces de Clavecin (1724)

새들의 부름, 마장조, 하프시코드를 위한 모음곡집 (1724)

5막

고백(유리피데스, 가르니에, 라신에 의거하여) - Confession (d'après Euripide, Garnier, Racine)

L'Enharmonique en sol mineur, Nouvelles Suites de Pièces de Clavecin (1726 - 1727)

이명동음, 사단조, 하프시코드를 위한 새로운 모음곡집 (1726 - 1727)

6막

그리고 최악을 위하여 - Et pour le pire

L'Égyptienne en sol mineur, Nouvelles Suites de Pièces de Clavecin (1726 - 1727)

이집트여인, 사단조, 하프시코드를 위한 새로운 모음곡집 (1726 - 1727)

7막

괴물들의 탄생 - Naissance des monstres

Les Niais de Sologne - Premier Double des Niais - Deuxième Double des Niais en ré majeur, Pièces de Clavecin (1724)

La Poule en sol mineur, Nouvelles Suites de Pièces de (1726 - 1727)

솔로뉴 지방의 바보들 - 첫번째 변주 - 두번째 변주, 라장조, 하프시코드를 위한 모음곡집 (1724)
암탉, 사단조, 하프시코드를 위한 새로운 모음곡집 (1726 - 1727)

8막

어둠 - Ténébroso

Musette en Rondeau en mi majeur, Pièces de Clavecin (1724)
Prélude en la mineur, Premier Livre de Pièces de Clavecin (1706)

론도 형식의 춤곡, 마장조, 하프시코드를 위한 모음곡집 (1724)
프렐류드, 가단조, 하프시코드를 위한 모음곡 제 1집 (1706)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이번 페드르를 준비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떻게 음악과 연극의 적합한 밸런스를 찾아내는 것인 지였습니다. 연극은 극작가의 텍스트를 무대 장치 및 조명 그리고 배우의 연기를 통해 눈앞에 가상의 세계를 재현해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음악은 오로지 청각을 통해 추상적 세계를 관객들 머릿속 상상의 세계에서 그려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시각, 청각이 그려내는 세계와 감정의 다양함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닌 서로 보완하며 감정을 더욱 극대화하길 원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가지의 재료가 이질적이지 않은 하나의 일관되고 독창적인 예술적 언어로 전달되길 바랐습니다.

그렇기에 연극배우의 목소리가 텍스트의 감정을 연기하는 것에 덧붙여 피아노와 같은 위치를 갖는 솔로 악기(의 소리)로서의 역할 또한 고민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음악과 배우의 감정이 1 대 1로 치환되는 구조가 아닌 배우의 연기와 음악의 교차를 통해 기쁨, 절망, 탄식, 유머, 아이러니 등 복합적인 인간의 감정을 동시에 여러 각도로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감정을 여러 각도로 바라보고자 한 점입니다. 페드르의 감정은 보는 각도에 따라 순수한 것이기도 하고 불결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본 작품에서 주 테마로 삼은 여성의 사랑 및 감정에서 좀 더 시각을 넓혀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비록 같은 행위와 감정임에도 개개인으로서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감정과 도덕적 간극이 있으며, 이 사이에서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이 모인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적인 면들을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북을 통해 여러분들의 감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품 및 음악 콘셉트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임에도 이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후원과 도움을 주신 부루벨코리아(주),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 주 프랑스 한국 문화원, Ursula Colneric Gedächtnispreis 그리고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Studio Philip An 의 연극이 있는 피아노 리사이틀 “페드르”

클레망 카마르 메르시에의 모노드라마 줄거리

(본 글은 독일 함부르크 엘브펠하모니 공연의 번역을 맡아주신 Ulrike & Dieter Kunert 부부의 요약을 인용하였습니다.)

- 1막** 페드르는 그녀가 테제왕의 아내가 되기 위한 결혼식과 이에 따르는 의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녀는 이제 곧 남편이 될 테제왕이 어린 자신을 납치해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어떻게 이전에 그가 사랑했던 자신의 친언니를 낙소스 섬에 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결혼의 마지막 장면에서 테제왕은 그의 첫 번째 결혼에서 얻은 아들인 이폴리트를 포함하여 그의 친구와 친척에게 페드르를 소개합니다. 페드르는 이폴리트를 마주친 순간,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을 직감함과 동시에 비극적 운명을 감지하게 됩니다.
- 2막** 페드르는 이폴리트에 대한 사랑을 억누르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라는 감정과 욕망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알고 자신이 느끼는 수치스러움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자기 증오와 반항 사이에 번민하는 페드르는 사실 그녀의 혼란스러운 감정과 수치심이 테제왕의 권력과 모험의 이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 3막** 여신 파이드라가 지은 비너스 성전 앞에 선 페드르. 그녀는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적 통념을 흔들다는 이유 때문에 억압되는 자신의 사랑과 여성들의 욕망에 대해 세상을 향해 소리칩니다.
- 4막** 한 전령이 테제왕의 부고를 전합니다. 그녀는 기뻐하고 신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제 자유로워진 자신을 축하하기에 이릅니다. 그녀는 곧 이폴리트와의 사랑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믿으며 그에게 달려갑니다.
- 5막** 페드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이폴리트에게 과거 그를 괴롭히고 추방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그를 향해 치달는 사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서였다고 고백합니다. 이폴리트는 이 고백을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여 분개하며 그녀의 감정을 거부합니다. 페드르는 자신의 사랑이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공포로 깨닫고 이폴리트에게 그의 칼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 6막**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테제왕은 사실 전사하지 않았고 지금 집으로 돌아 오는 길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 7막** 이폴리트가 그녀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된 페드르. 질투에 휩싸인 그녀는 이폴리트를 모함하여 테제왕으로 하여금 아들 이폴리트를 죽이도록 합니다.
- 8막** 그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에 짓눌린 페드르는 이 고통을 해결할 방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삼킨 독약이 점차 온 몸의 감각을 앗아가는 동안, 그녀는 자신과 같은 괴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회와 정화를 말하며, 남겨진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모노드라마를 위해 구성한 장 필립 라모 음악이 극에서 갖는 의미에 관하여

음악: 장 필립 라모

구성: 안종도

Prélude non mesuré

- 본 작품에 있어 프렐류드는 마치 거대한 밀물, 썰물과도 같습니다. 제게 있어 이 곡은 바로 이플리트를 처음 봤을 때 휩싸인 감정, 그 감정들을 알아채고 또 앞으로 닥쳐올 운명을 예견하며 받아들이는 페드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칠게 몰려오는 바닷물과도 같은 음악 안에 페드르의 감정 및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프렐류드는 곧 잠잠해지며 다음 알르망드로 넘어갑니다. 그녀는 아직 담담한 것 같습니다. 이제 18살인 페드르는 아름답고 젊고 당당하죠.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마주하고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Allemande

- 라모 음악의 독창성은 바로 치밀한 화성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39세의 나이에 화성학 저서를 발표하며 한때 음악가보다 이론가로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먼저 화성의 진행을 스케치하고 그 위에 선율을 입혀 작품을 완성하는 Bass Fundamental 이라는 기법으로 작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알르망드를 연주하면 종종 공기 중에 떠 있는 리본 체조 선수의 리본이 떠오릅니다. 유려하고 매끈하고 어디 하나 빈틈이 없는 리본과 같은 멜로디의 움직임에 치밀한 화성이 부여하는 감정이 뒤섞이는 것 같습니다. 이 감정은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리본도 흐르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페드르가 마주하는 지금의 감정처럼.

Le Lardon

- 불어로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년은 더없이 순수하지만 더없이 무례하기도 하군요! 감히 아테네의 왕비 페드르의 말을 끊으며 옆에서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아테네의 왕비는 이 소년의 놀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양아들을 좋아하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녀도 아직 왕비이기 전에 사랑받고 싶은 소녀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불쌍하면서도... 한 나라의 국모가 체통을 못 지키는 모습이 창피하기도 하고 이 창피한 감정을 갖는 제가 창피하기도 합니다!

Les Soupirs

- 수많은 “(사랑의) 탄식”을 뱉어냅니다. 그리고 페드르를 위로하고 제 자신을 위로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싶지만 신과 세상은 그녀를 그렇게 되도록 만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좌절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나고 또 비참해 합니다. 결국 상처받은 것 같습니다.

그녀가 분출하는 감정에 그리고 익숙치 못한 몇몇 표현에 저도 당황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상처받은 것 같습니다. 탄식의 호흡에 맡기어 감정을 추슬러봅니다. 그리고 왜 그녀가 350년 전 장 라신의 작품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꺼낼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Studio Philip An 의 연극이 있는 피아노 리사이틀 “페드르”

Le Rappel des Oiseaux

- “새들의 부름”이라는 제목처럼 수많은 새들이 지저귀며 어떤 소식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소식인가 보군요!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극작가 클레멍은 제목을 “최상을 위하여”라고 적어 놨어요. 심지어 대사 중에 “브리지트”라고 외치며 라파엘, 클레멍 그리고 저까지 우리 셋을 알게 인연을 놓아준 프랑스 극작가 “Brigitte Jaques-Wajeman”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연주하는 제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최고로 좋지만은 않습니다. 연주가 어렵기도 하지만 음악이 꽤 거치네요. 지금 정말 최상의 소식이 맞는 걸까요?

L’Enharmonique

- 우리말로 “이명동음” 풀어서 “딴 이름 한 소리”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시 말해 피아노 건반은 같은 음을 누르지만 화성의 진행에 따라 우리는 그 같은 음을 다른 계이름으로 부르기로 약속한 것이죠. 우리는 같은 현상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르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음악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 곡에 맞추어 페드르가 드디어 이폴리트에게 고백을 합니다. 순수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녀의 모습이 아름답기도 한편으로는 터부적 사랑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감정을 두고 이런 상반된 단어가 생각나는 걸까요.

Les Niais de Sologne

- “솔로뉴 지방의 바보들”이라는 제목처럼 우스꽝스러운 음악이 이어집니다. 라모는 악보에 “notes égales” (음들을 고르게 연주)라고 적어 놓으며 우아함 아래 자유롭고 즉흥적인 감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프렌치 바로크 음악의 미적 감각을 포기한 듯하네요. 페드르는 피아니스트 옆에 앉아 그녀가 왕비인 것도 잊은 채 질투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모습이 우습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아니면 그런 감정이 바보 같은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여겨야 한다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Prélude non mesuré

- 저 멀리서 희미하게 빛이 밀려옵니다. 그 빛은 눈덩이처럼 무섭게 커지더니 밀물처럼 순식간에 그녀를 덮치며 세상에서 지워버립니다. 350여년이 지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사랑을 말한 그녀는 왜 다시 한번 죽어야 했을까요. 이 프렐류드는 Prélude non mesuré (마디가 없는 프렐류드)라는 형식을 취한 프렌치 바로크 특유의 즉흥성을 띤 작품이기도 합니다. 딱 짜여진 마디안에 정해진 박자 시스템에 따라 나열 된 음이 아닌, 틀 없는 자유로운 박자 안에 나름의 유기적 생명을 갖고 매 순간이 빛나는 그 음악의 표현에서 그녀가 원했던 가치는 어떤 것이었는지 상상해 봅니다. 다음 350년 후를 기억해 봅니다.

출연진 프로필



안중도

연출, 피아노

피아니스트이자 하프시코디스트인 안중도는 2012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퐁 티보 크래스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 및 최고 독주상, 최고 현대작품 해석상을 수상하며 유럽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샹테페테르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업하며 유럽 무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20년 아트센터 인천의 예술감독을 맡아 4회에 걸친 마티네 공연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며 온오프라인으로 5만명이 넘는 관객들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2021 교향악축제>에서는 한국 최초로 예술의전당에서 하이든의 하프시코드 협주곡을 연주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2019-2021 시즌에는 독일 함부르크 엘브펠라모니, 도쿄 토판홀, 남아공 뮤직 소사이어티, 아트센터 인천, 예술의 전당 IBK 홀 등에서 독주회를 열며 독일과 프랑스 바로크, 낭만주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세계의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현재 독일 함부르크에 공연 전문 프로덕션인 Studio Philip An을 설립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활발한 예술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2021-2024 시즌에 Studio Philip An의 창의적 문화융합 프로덕션 3부작을 기획하고 있다. 세계적인 작곡가, 안무가, 미술가, 철학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발전시키고 그 가치를 관객들과 나누고자 한다. 안중도는 2022년 3월부터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 조교수로 임용되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클레망 카마르 메르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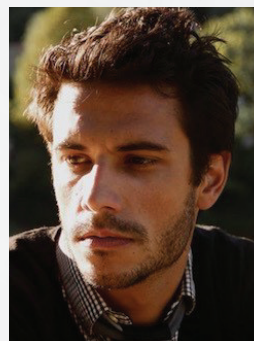
Clément Camar-Mercier 각색

프랑스 파리 국립사범대에서 예술사와 연극이론 박사 학위를 받은 클레망 카마르 메르시에는 크리스티앙 시아레티(Christian Schiaretti), 브리짓 자크 와제만(Brigitte Jaques-Wajeman), 프랑수아 르노(François Regnault) 등 프랑스 최고 연출가들과 연극 작업을 했다.

극작가, 번역가, 비디오그래퍼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동시에 엑스 마르세유 대학에서 3년 동안 영화를 가르쳤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아르테 프랑스(Arte Franc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프랑스 감독 피에르 셰발리에(Pierre Chevalier)와 공동 작업을 진행했으며, 캐나다 영화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2010년 프랑스 문화 칼럼니스트인 조엘 가요(Joëlle Gayot)와 함께 제작한 세익스피어의 희곡 <폭풍우(La Tempête)>를 번역하고 각색하여 다수의 상을 수상했고, 바스티유 극장(Théâtre de la Bastille), 알렉스 국립극장(Scène Nationale d' Alès) 등의 무대에 올랐다.

2022년에는 세익스피어 작품 중 가장 마지막으로 번역한 작품인 <리처드 3세>가 초연될 예정이며, 장 라신 희곡 <페드르>의 각색을 맡아 한국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라파엘 부샤르

Raphaële Bouchard

배우

라파엘 부샤르는 프랑스에서 연극 및 TV 드라마 배우로 활약하고 있다. 파리 국립고등연기학교(CNSAD)를 졸업한 후 프랑스 주요 극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2015~2018년 방영된 TV 시리즈 <Section de Recherches>에서 카미유 샤토네(Camille Chatenet) 역을 맡으며 프랑스의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았다.

2020년에는 연극 <페드르(Phèdre)> 주연을 맡아 파리시립극장(Théâtre de la Ville)에서 열연을 펼쳐 평단의 극찬을 받았으며, 2021년 프랑스 생 모르 극장(Théâtre de Saint-Maur), 모리스 노바리나 극장(Théâtre Maurice Novarina) 등지에서 앙코르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피아노 연주와 함께하는 모노드라마 형태로 재탄생하는 <페드르> 공연을 통해 그동안 연기에 왔던 전형적인 '페드르' 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적 캐릭터의 '페드르'로 재해석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관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고자 한다.

조만수

번역

현재 충북대학교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이며 연극평론가, 드라마터그로 활동하고 있다. 남산예술센터 극장 드라마터그, 국립극단 희곡우체극장을 역임했다. <오솔로>, <과부들>, <햇빛사위>, <동주암> 등의 연극과 창극 <산불>, <단테의 신곡>에 드라마터그로 참여했다.

조만수는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과 대학원에서 라신의 비극성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프랑스 낭시 대학에서 토마 코르네유의 극작법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시대 연출가론 1』, 『세계고전 오디세이 1』 등의 책을 공저했으며, 철학자 장 퓌코 낭시의 『무대』를 번역했다. 주요 논문으로 『베케트 희곡의 새로운 해석: 들뢰즈와 바디우를 통하여』, 『프랑스에서의 드라마투르기 개념』 등이 있다.

STUDIO PHILIP AN

피아니스트 안종도가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한 종합예술 프로덕션 Studio Philip An은 음악을 중심으로 연극, 무용, 문학, 철학, 미술,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사회적 이슈를 융,통합하는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인적 예술가 양성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 전문가들을 위한 워크숍, 기술과 예술을 접목하는 전시회 등을 함께 기획하고 있다.

신선한 시도와 창작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살아 숨쉬는 고전의 재탄생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Studio Philip An의 비전은

'문화융합 3부작' 이라는 첫 프로덕션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예술은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의 생활 방식, 감정, 정치, 과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인간 삶의 총체적 반향이자 우리의 삶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요소이다. 피아니스트 안종도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피아노 및 하프시코드를 전공한 후, 다양한 문화융합 프로젝트와 새로운 예술 시장 개척에 대한 학구적 열망으로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예술미디어 경영학과 석사과정을 밟으며 다양한 네트워킹을 구축해 왔다.

일찍이 예술 융합이라는 주제에 대한 탐구심에서 2018년부터 함부르크에서 국제적인 음악 페스티벌 '클랑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영향력 있는 음악잡지인 포노 포럼(Fono Forum)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페드르>의 후속 작품으로

현대 사회의 이슈를 고전 음악과 문학, 현대 음악, 현대 무용의 협업으로 풀어내는 음악극 <슈베르트-단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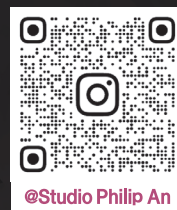
이 작품은 플라이아노 문학상 수상자인 박상진 교수 및 독일, 폴란드, 프랑스의 예술가들과의 협업으로

2023-2024 시즌 유럽과 한국 초연을 목표로 제작 중에 있다.

www.philip-an.studio



Studio Philip An



@Studio Philip An

연극이 있는 피아노 리사이틀 “페드르”

제작 및 주최 : Studio Philip An

예술감독 : 안종도

매니징파트너 : 문수지

주관 : 에피파니모먼츠